리더십을 버리고 죄인의식을 회복하라

(딤전1:12~20)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리더십을 버리고 죄인의식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리더십은 버리고 죄인 의식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마피아 보스와 목회자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피아 보스와 목회자의 공통점은 둘 다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마피아 보스는 죄인의 괴수답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마음에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마피아라는 집단의 지도자로서의 의식만 가득한 자가 마피아 보스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는, 실제로 지금 현재 그가 그렇게 악행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의 자아의식 안에서 죄인의 괴수이고, 마피아 보스는 행동적으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마피아 보스는 지도자적인 자아의식을 갖고 있고, 목회자는 자기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다른 교훈을 목회 현장에 끌어들이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과 사실은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회 현장을 장사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이미 목회자 마음속에 장사꾼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꾼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 교인은 여기서 손님이 되고 고객이 됩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훈을 끌어들이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죄인 됨의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의식을 갖는 것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장사꾼의 마음이고, 교회 현장을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영학의 원리를 교회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전도를 마케팅이다 뭐다, 라고 얘기하고, 시장조사라는 말까지 목회 현장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게 다 장사꾼의 마음으로 변했다는 증거이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 따위는 버려야 합니다.
목회는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죄인 됨의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는 은혜가 임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 됨을 느끼는 깊이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죄인 됨을 느끼는 깊이가 낮으면 임하는 은혜가 적고, 죄인 됨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많이 담기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회 현장에서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목회자의 자리를 당신의 사역 장소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는 일어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세상 모두가 죄인이고, 그 모든 세상 죄인들 중에서 부름 받은 죄인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교회로 모인 중에서, 죄인 됨의 의식이 가장 큰 자, 내가 이들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죄인의 괴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해 주는 말씀이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큰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직책을 맡기셨다, 본받아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죄인의 괴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 앞에서 과거의 죄인 됨을 고백합니다.
참~! 이름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던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예외 없이 목회자들끼리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이, 평신도들과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경우에는 목회 현장에서 하셨던, 이루셨던 어떤 무용담이 나오게 됩니다, 실천적인 무용담이.
내가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허물이 없으니까, 꼭 자랑이라는 의미보다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런 경험담을 즐겁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바울은 그런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장 과거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교회에 폭행을 가한 거예요, 실제로. 멧돼지가 포도원을 잔해 하듯이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 속에서 죄 됨의 측면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결국 살인죄에까지 가담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거짓증거의 죄도 있지요?
왜냐하면 잘된 것을 잘못 됐다고 얘기하니까, 거짓증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이게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바울은, 만약에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그는 죄인이 아닌가? 죄인의 괴수가 아닌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시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가 박해를 했건 안 했건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보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박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박해라는 행동을 했건 안 했건 죄인의 괴수라는 죄 값의 무게는, 죄인 됨의 무게는 똑같다 이겁니다.
단지, 속에 있던 죄악 됨이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서 확증된 겁니다.
누구에게?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확증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착하게만 살아도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착하게 살면, 행동에서 범죄가 안 일어나면, 자기는 의인인줄 알고 사는 게 인간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도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아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베게가 썩도록 울면서 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복중에서 이미 죄 중에 잉태되었다 얘기합니다.
밧세바를 건드리기 전에, 우리아를 그렇게 정말 악질적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기 전에, 이미 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던 죄가, 밧세바를 계기로 드러난 것뿐이지, 밧세바 죄가 없었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디모데야 너는 나처럼 행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나의 죄인의 괴수됨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도 나 자신의 죄인 됨의 괴수성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그러면 목회 현장은 나의 지도력을 갖고 하겠다고 나서는, 오해의 현장 오해적인 사역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힐 자격이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래갔고 순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에서 고통 받는 스승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는, 생각 할수록 몸 둘 바를 모를 그런 죄악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자기 속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의 방향을 잡아 준 사람 아닙니까?
한참 4세기에, 교회가 교리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팡질팡 할 때에, 어거스틴이 교회의 방향을 잡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독하게 방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속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속의 죄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 속의 죄를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 재미있냐 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게 참 재미있어요, '미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이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될 만큼 믿을만한 말이다.
이게 참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교리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데, 자기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모본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미쁘다는 이 말이 웃긴다는 거예요. 왜 웃기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 안에, 굳이 의심을 하려면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굳이 믿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게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도 된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라서, 너무나도 식상할 정도로 당연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 왜 의심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박차고 땅에 내려오시면서까지 수고를 하시는데, 절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실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이 생각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믿을 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는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의인들을 골라내는 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인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인 선민인 자기들을 드높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아주 훌륭한 기업에 취직을 했다, 의인을 뽑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자들을 뽑는 겁니다.
의인이 뭐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심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어법적인 표현을 써서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야 이 말이 믿어지냐 너 지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이, 거룩함에 가까운 의인을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데 이게 말이 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뉘앙스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을 받은 걸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믿을 만하다 확실히 믿을 만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세리와 창기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그럼 왜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구분갈 수 있을까요?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이, 죄인의 괴수라고 할 만큼 마피아 보스가 죄인의 괴수 아닙니까?
근데 나는, 마피아 보스 같은 범죄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더한 죄인 됨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특히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기계적으로나 강압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해서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게 엄청난 죄라는 걸 깊게 느끼고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흡입력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는 강렬한 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인내해 주셨다 그랬어요, 인내.
인내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참아 주셨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의 차이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사도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공감하냐 하면,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던 다른 국면에서는 괜찮았을까요?
아니, 마찬가지에요 죄악 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리새인인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섬긴 거지요.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거 없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고, 조금 내용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을 뿐이지, 자기를 섬겼던 거예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악이라서, 이 죄악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목회를 사람을 부흥을 시키고 싶다,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소원이 일어나면, 그걸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 안으로 많이많이 들어오시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하고 싶은 역겨움을 느끼시는데도 참고 계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소원을 가졌던 일이, 그렇게 역겨워 하시는 일이었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반복되는 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의 얘기가 또 나와요.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 하는 죄악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을 잘해 봐야지, 돈을 많이 벌어 봐야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잘살아 봐야지,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키워 봐야지, 내가 목회를 성공시켜 봐야지.
이러한 이 땅에서 갖는 소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 하는 죄악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소원도 세상에 대해 갖지 않고, 하나님만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죄인의 괴수라는 걸 아는 사람.
참 지독하게도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좋아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죄악의 습성이 여전히 활활 살아 있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 같이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걸 알고 난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순간.
자꾸 죄악 된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거든요, 이게 더러움이거든요, 이게 역겨움이거든요.
멀쩡한 자식인데 내 마음에 끌어들이면 역겨움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업 현장인데 내 마음에 끌어들이면 역겨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잘해 봐야지 할 때, 어이쿠! 이거 내가 또 더러운 일을 하는구나, 십자가를 붙잡고 사업에 대해 죽는 겁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식에 대해서 소원이 생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이쿠! 내가 또 더러운 짓을 하는 구나.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경우가.
그냥 뭐 자식 좋아하는데 뭐 어때, 아! 좀 사업 좀 잘해 보겠다는데 뭐 어때, 아! 교회 예배당 건물 좀 잘 지어 보겠다는데, 교회에 교인이 늘면 뭐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느는 거니까 뭐 어때…
다~ 나를 위한 장사꾼의 마음인데, 나를 속여 가면서 나를 속일 수 있는 거는, 이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느껴지질 않고 있으니까 나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됨을 느끼는 사람 같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계속 죽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장갑처럼 끼시고, 목회 현장에서 당신의 손에 힘을, 그 오른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같은 거, 내가 지금 지도자입네 하고 무슨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라, 이 따위 말에 속지 마세요, 이 따위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고, 안 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는.
근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본질적으로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가 단 한 순간도 잊혀 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어떡하든지 목회자의 관심은, 설교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인간인 나는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는 소원이 유일한 목회의 관심이고 소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 됨의 괴수이니까, 내가 나타났다 하면 이 교회 현장은 망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나는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목회 현장에 임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지상에 허락하신 각 곳에 있는 지역교회, 얼마나 복된 현장입니까?
이 현장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목회자들이, 모인 사람 전체 중에 자기 자신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